

로버트 피터슨(Robert Peterson) 박사, 누가복음- 사도행전

세션 17,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4부, 감옥에 갇힌 바울은 복음을 전함; H 마셜, 1)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2) 사명과 메시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17회기,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4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러나 복음입니다. 나, 하워드 마셜(Howard Marshall), 1)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2) 사명과 메시지.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연구할 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에 나오는 누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9번 항목, 감옥에 갇힌 바울,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음, 행 28장. 우리가 찾은 누가복음 28장은 매우 중요하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행 28장 17절부터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그 지방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였더니 이르되 형제들아 나도 하였으나 우리를 대적한 일이 없노라 사람이나 우리 조상의 풍속을 따르다가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느니라 그들은 나를 심문한 후에 나에게는 사형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를 풀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을 고발할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만나 이야기하기를 청하였노니 내가 이 사슬을 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함이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도 당신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한 사람도 없으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노라 종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나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을 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혼자 머물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르러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날을 정하고 그의 숙소로 더 많이 왔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면하니라

그리고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하였으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사야 6장을 인용하여 가서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하되 영영히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해하라. 그러면 너희는 실제로 보지만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으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이사야서 6장, 9장, 10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는 2년 동안 자비를 들여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하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사도 일행은 몰타를 떠나 로마로 향했는데, 몇 차례 정차하고 약간의 육로 여행을 거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로마에 입성했을 때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혼자 살도록 허락받았다고 썼습니다. 사도행전 28:16.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면회를 허락받았으므로 2년의 투옥 생활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자 로마인들이 확인한 유대교에 대한 혐의에 대해 자신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7절과 19절.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방문객들에게 솔직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와 이야기하기를 청하였노니 이는 내가 이 사슬을 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함이니라.

바흐는 바울의 말을 강조합니다. 인용문,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끝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이야기는 세계의 희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종말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곳입니다. 단다. 인용문, 바흐, 누가와 사도행전의 신학, 403페이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 관해 그들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이 종파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22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23절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면하더라. 23절.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관해 이사야의 강한 말을 인용하자 그들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8:24~27.

따라서 Marshall이 지적했듯이 아버지처럼, 아이들처럼이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가까운 인용문, 마샬, 행 4:24.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살은 아버지처럼, 아이들처럼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그들은 들을 것이다.

28절.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1:16.

과거형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보내졌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용하자면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보내는 것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합니다.

데이비드 피터슨(David Peterson), 사도행전, 718쪽. 누가는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많은 방문객을 담대하고 자유롭게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30절과 31절. 따라서 로마 투옥 기간 동안 바울의 초점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희망인 메시아이신 예수께 맞춰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가 구약 메시지의 성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응답하는 가운데 보내셨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적 통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로 요약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 왕국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2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했습니다. 23, 31절은 가장 마지막 구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함입니다. 동일한 개념, 동일한 단어라도 구절의 양쪽 끝에 있어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누가는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왕국과 기독교론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로 요약했습니다. 라킨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메시지를 간단히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경건한 유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메시아 예수의 승리의 삶과 죽음, 부활 승영과 그의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킨 행위, 388페이지.

복음 메시지를 언급하는 단순한 약어 그 이상입니다. 행 1:3, 8:12, 19:8, 25, 28:31. 복음 메시지를 간단히 언급하는 것 이상입니다.

행 1:3, 8:12, 19:8, 20장 5절, 28:31.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유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고속도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3:28-29, 누가복음 14:15, 19:11, 23:42-51, 사도행전 1:6.

그 구절을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13:28-29, 누가복음 14:15, 누가복음 19:11, 23:42-51, 사도행전 1:6.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방문객들에게 예수가 구약성서의 메시아임을 확신시켜서 구약성서 간의 통일성을 보여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중복되며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세 가지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며,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감동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아 유대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행 28:23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28장 23절, 31절은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새겨줍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28:30,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복음을 끝맺습니다. 누가는 첫 번째 독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권유합니다.

행 16:31,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 사도행전 16:31, 바울은 처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독자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열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눅 5:10)가 되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셋째, 복음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위로하기도 하는 서구의 성도들에게는 스리랑카 복음주의 전도자인 아지트 페르난도(Ajith Fernando)의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 우리와는 매우 다른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 그는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는 성경적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과 모범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선교학자인 Nelson Jennings와 수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전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와 상황의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르난도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고난받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복음주의는 주권의 그늘 아래서 번창한다”고 썼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깊이와 효율성은 박탈, 주권, 순종이 혼합됨에 따라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면 고난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르난도(Fernando), 사도행전 629페이지에 대한 NIV 적용 주석.

누가 박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지 말하기는 쉽습니다. 놀랍고, 힘들지만, 충실하게 페르난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스리랑카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탈감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8장의 바울의 경험은 디모데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윗의 자손이 되셨느니라. 내가 결박되기까지 고난을 받았느니라.” 범죄자와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8절과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 줄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장, 9장입니다. 벤 위더링턴 3세의 말은 사도행전 28장의 요약이자 사실상 사도행전 전체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장애물도, 난파선도, 독사도, 로마 당국도 제국의 심장부와 사람들의 심장부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말씀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진 명령을 내리고,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에게는 어떤 외부 장애물도 너무 크지 않다고 믿으며 담대하고 자유롭게 말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와 사명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극복해야 합니다.” 위더링턴, 사도행전, 815쪽과 816쪽.

이로써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아홉 가지 주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워드 마샬의 사도행전에 대한 뛰어난 주석, 특히 여러 제목으로 사도행전 신학을 다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의 지속, 첫째. 두 번째는 사명, 사명,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합니다.

넷째,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사도행전 신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통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생활과 조직입니다.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그가 쓴 방대한 주석, 누가복음, 그가 쓴 주석과 그가 쓴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한 사도행전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서신을 전문으로 하는 유용한 글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 신학, 하워드 마샬, 사도행전. 우리는 누가가 기독교의 시작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를 썼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가 특별히 특정한 신학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신학적 전망의 본질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행위.

누가가 이 이야기를 신학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그가 역사를 낯선 신학적 틀로 제시하여 재해석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마샬의 또 다른 책은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누가(Luke)인데, 여기서 그는 누가가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확성을 위해 노력한 투키디데스나 폴리비우스와 같은 고대 역사가였습니다. 그건 진실이야. 다른 고대 역사가들은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허공에서 연설을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폴리비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역사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고수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연설 등을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설을 자신의 말로 요약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을 꾸며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역사로서 제시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가이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FF

브루스, 데니스 존슨,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에 대한 나의 메모를 통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도행전 역사의 특정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을 전달하기 위해 역사의 특정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점은 제가 방금 제시한 목록에 이름을 포함할 바흐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작가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행전을 뒷받침하는 최우선 개념으로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마샬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구약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와 예수의 사역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신학적 전문 용어로 통용되는 문구는 구원 역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구는 예수와 초대 교회의 생애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하나님 자신의 활동이 드러나는 역사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그리스도와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때때로 신앙이 본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다는 실존주의적 견해와 비교됩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역사적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일부 신화적 요소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Marshall과 함께 틀렸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실존적 메시지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청중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ucidus는 이 메시지를 예수에 대한 역사적

보고서로 변형하여 예수 이야기를 원래 역사의 끝이었고 이제 역사의 중간이 된 역사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행위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행위신학에 관한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의 책의 주제이다. 마샬은 이것이 증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와 독립된 실존적 메시지는 결코 없었고, 오히려 누가 제시한 구원사 제시가 기독교의 본래적 이해였다.

구원의 역사적 접근 방식과 실존주의적 접근 방식을 대조하는 것은 잘못된 대조를 낳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여진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이라는 실존적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는 신앙의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였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앙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는 사건의 현실이 부정된다면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17,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17. 주님께서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여름에 함께 일했던 경건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받은 21세의 나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갑니다.

그 중 하나는 바울의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저기서 보고, 이런 것을 발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그래오셨던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하기 때문이고, 이런 것을 고안해낸다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이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쓴 글의 기초에서 그것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삼위일체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삼위일체론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기 위해 사용하신 또 다른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것들을 얻으리라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는 단지 동화에 불과한 메시지에 인생을 바치는 바보 무리입니다. 마샬이 방금 인용한 내용은 설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고 여러분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물론 그 직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담 등에 비유하여 예수의 부활이 근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희망인 하느님 백성의 부활을 위하여.

역사는 중요합니다. 성경의 신학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칼 헨리(Carl Henry)가 수년 전에 말했듯이, 그분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시는 행위와 말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행동하시며,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 기본 사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을 언급해야 합니다. 첫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23장을 인용하여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미리 아신 사건의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일어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교회가 경험한 반대는 사도행전 4:27-29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반대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교회의 삶은 성경의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교회 역사의 과정, 성령의 부어주심, 구원의 선포를 다스린다(행 2:17~21). 이방인을 향한 선교(행 13:47)와 그들의 교회 내 연합, 행 15:16~18, 유대인 전체가 복음에 반응하기를 거부함, 행 28:25~27.

셋째, 교회 생활은 중요한 단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영이 교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했습니다(13-15, 28:16, 6). 다른 경우에는 천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5:19 및 20:8, 26, 27:23). 선지자들,

11:28, 20:11, 12. 때때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셨느니라, 18:9, 23:11.

넷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과 기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행3, 16, 14, 3장. 결과적으로 기독교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역사와 신학의 불가분성에 관해 마샬은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네 가지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성경의 성취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때때로 사도적 메시지와 함께 표적과 기사를 가져오십니다. 둘째, 사명과 메시지. 사도행전은 선교에 관한 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내용의 요약으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견적을 달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본 12명의 임무였습니다(1장 21절과 22절). 이스라엘. 그러나 그 임무는 결코 12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선포된 메시지는 책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일련의 공개 연설을 통해 설명됩니다. 넓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요, 주로 구원의 근원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죄 사함이 주어졌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내려온 것도 그에게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구원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28을 제외하고는 그의 죽음과 구원의 가능성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얻은 인상은 오히려 예수께서 구원을 베풀고 교회에서 그의 강력한 일을 수행할 권세를 받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높아지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영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축복은 죄 용서와 성령의 은사로 요약됩니다. 후자는 기쁨과 영적인 힘의 경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의 종교가 덜 신비스럽다고 가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경험을 다른 용어로 묘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와 분열,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적 경험에 주어진 위치는 이 책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실제적이고 심오한 요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된 사울의 회심에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교리를 취하신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연합하여 한 쪽을 만지면 다른 쪽도 만지는 것과 같았던 그들의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줄거리는 메시지의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모인 지상의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들의 존재로 시작하여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의 영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점점 더 많은 개종자를 모으는지 설명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그룹의 성장과 통합을 묘사합니다. 6장부터 우리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제들이 개종하고 동시에 기독교 증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분산과 관련된 다양한 회당에 도달합니다.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되자 메시지는 유대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후

일부 사마리아인과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여행자의 개종으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9장 중반에서 저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포함되면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사건을 통해 교회는 비유대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접촉을 가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방인들 역시 메시지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굳게 세워지자 이방인 선교는 확고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선도적인 인물이었다면, 초기부터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지점까지 교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선교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은 본질적으로 바울이 다른 전도자들과 협력하여 소아시아와 헬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 복음은 지중해 동부 전역에 효과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일이 완료된 것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20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직 책의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법원과 총독 사이에서 겪은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며, 그 과정에서 그는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결백을 항의하며 사실상 로마 당국에 의해 이를 확인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로마 여행에 관한 상당히 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기록의 목적은 어떻게 바울의 인격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확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른 목적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른 신학적 요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도행전의 다른 신학적 요소들을 탐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행전의 신학에 대한 Dr. Robert A. Peterson의 가르침입니다 .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17회기,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4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러나 복음입니다. 나,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 1)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2) 사명과 메시지.